

전략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朴 在 夏 (先任研究委員, 3705-6317)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통산업과 아울러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아직까지 많은 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금융허브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의 활발한 대외 진출을 통하여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규제의 적극적 완화,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금융감독제도의 선진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각종 제도 및 생활여건의 개선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금융허브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안의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서비스업, 특히 금융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3년 12월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해 왔으며, 최근에는 금융허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금융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브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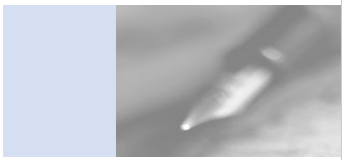
금융산업의 육성 필요성

우리경제는 10년전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현재 세계 5위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1인당 GNI도 작년말 1만 8천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금년말에는 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대에 묶여 선진국과의 격차는 줄지 않고 있는 반면,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출위주의 제조업과 내수위주의 서비스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동산 경기의 장기과열과 급락 우려 등으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산업에만 의존하는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제조업의 첨단화와 더불어 금융·물류 등 서비스 부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 중에서 금융산업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육성 필요성이 큰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2006년 중 금융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63.7조원으로서 부가가치율(부가가치/산출액)이 71.0%에 달하여 제조업의 22.1%나 전체산업 평균 38.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7년 이후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허브 정책 추진성과

정부도 금융산업을 향후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참여정부 초기부터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즉,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에서『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된 후, 2007년까지 금융허브 기반구축, 2010년까지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 완성, 그리고 2015년까지 아시아 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한국투자공사를 출범시켜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등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수요·공급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금융대학원을 개원하고, 금융전문 인력센터를 운영하여 금융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계기로 정부, 금융회사, 권역별 연수기관이 합심하여 산학협동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력센터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수급 D/B 구축 및 수급 전망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금융인력의 효율적 수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달성함으로써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초기부터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금융산업의 현황과 과제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획기적으로 강화되었



다. 참고로 지난해 국내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1.12%로서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BIS자기자본비율도 12.32%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90%에 머물러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 추세 등의 사회현상에 힘입어 적립식펀드를 중심으로 장기투자가 활성화되고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증시저변이 튼튼해지면서 주가지수가 사상 최초로 1,500을 돌파하고 상장시가총액이 8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크게 강화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가 빠르게 추진되어 왔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금융기관 처리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가 빠르게 추진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고객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고객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국내 금융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과 함께 외국기업이 국내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면 금융산업이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낮고 관련규제가 과다하여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타 선진국, 특히 기존의 금융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하면 금융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아직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 명목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금융연관비율은 2001년 이후 6.2~6.5배 정도로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미국(9.0배), 영국(11.8배), 일본(11.8배)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규모 중에서 차지하는 금융산업의 비중도 2006년말 기준 3.26%로서 미국(4.9%), 영국(4.0%) 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내 금융산업의 고용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진국에 비해 금융규제의 과다 및 감독분야의 취약성도 금융선진화를 가로막는 제약 조건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로 Heritage



Foundation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특정 국가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경제자유도 지표가 세계 36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금융감독의 상시감시체제가 일부 도입되었으나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정기검사 위주로 금융감독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새로운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전문인력의 부족도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금융억압이 강하여 위험관리를 고도화하거나 금융기법을 습득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고급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원활한 영어구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융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수는 더욱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선진 금융기관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등 국내 금융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없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전략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지향해야 할 비전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에 활발히 진출하여 역내의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금융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규제·감독·세제·생활환경 등 모든 면에서 외국의 금융허브에 필적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먼저 금융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효율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금융자유화 및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국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지향해야 할 비전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역내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다.



금융관련 규제 완화, 감독제도의 선진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이 시급하다.

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빨리 자유화해야 한다. 한편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을 선진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시스템의 상시감시 및 부문검사 강화, 위험관리에 기초한 동태적인 감독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감독기관과 함께 회계법인, 자율규제기관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분식회계, 소비자보호, 불공정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적출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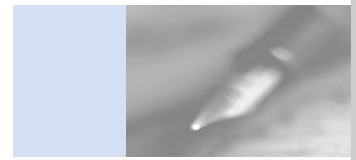
국내 금융기관들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들 간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금융산업의 겸업화,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적 투자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허브 수립을 위해 핵심사항 중 하나인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에 주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대학원, 권역별 연수기관 및 연구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활용하고 해외 연수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인력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허브정책을 체계적으로 강력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산업을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허브정책과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 및 동북아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기관 스스로도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허브정책을 체계적으로 강력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는 1999년 중앙은행(MAS)법에 금융산업개발기금(FSDF)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허브 촉진을 위한 기금 설립을 법제화하였으



며, 최근 두바이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육성을 위해 DIFC법을 제정하여 DIFC 내에서만 적용되는 독립된 사법제도 및 금융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융중심지조성안의 입법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능력 및 법적 권한을 갖춘 일원화된 정책기구를 원활히 운영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동북아 금융허브 목표가 요원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KIF**